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3호 / 2026년 07월 21일 / FAX(031)680-6850 / md.kwmu.kr /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이번 주 23일, 임단협 1차 교섭 진행

- 사측, 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계약 의도!!

이번 주 7/23일(목) 2026년 임단협 1차 교섭이 시작됩니다. 노동조합은 올해 임단협을 준비하면서, 조합원의 고용과 미래를 위한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그리고 실질임금 회복과 노동조건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이 2026년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단체협약 개정안을 노동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지난주 전달된 사측의 개정안 요구는 한마디로 노동조합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명백한 계약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산재자에게 지급되던 급여를 조정해 줄하겠다는 것, 건강상담을 위해 의사를 상주시킨다는 단체협약을 간호사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조합원의 건강권을 비용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노동조합은 불필요한 경영의 걸림돌이라는 사측의 저급한 인식 수준을 가늠케 할 뿐이었습니다.

■ 노동조합 약화를 틈타 현장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사측은 간부 활동 시간 축소와 16명의 전임자를 12명으로 개정하자는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축소는 이미 수년전부터 사측이 요구하고 있는 문제지만, 핵심은 노동조합 무력화입니다.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조합원의 임금과 복지 그리고 노동조건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사측의 의도가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단체협약을 근로기준법과 노사협의회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26년 임단협을 단순히 임금 요구에 그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들고 돌아 다시 2012년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13년을 바로잡을 것인가? 다시 돌아갈 것인가? 이번 교섭을 통해 무엇을 쟁취하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가는 현장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로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26년 임단협,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지난 철의노동자 22호에서 정년연장과 신규채용 요구는 모든 조합원의 고용보장 요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정년연장 문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시간의 문제이고, 신규채용 요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공장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사활을 걸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지난 3/13~14일, 교섭위원 수련회를 끝으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구안 또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 제대로 된 임금과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차분히 준비해 왔습니다.

한편, 지난주 원주지회를 시작으로 지회별 지부장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섭은 교섭장에서 하지만 조합원의 참여가 없는 교섭은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간담회의 분위기가 교섭을 여는 포문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지부장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요구가 무엇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교섭은 새롭게 출발한 만도지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노동조합의 방향을 만드는 것은 조합원이었습니다. 요구안을 만드는 것부터, 투쟁을 결정하고 교섭을 끝내는 모든 것까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해 왔습니다.

□ 26년 임단협, 절절한 현장의 목소리가 승리를 좌우합니다!

사측도 이번 교섭에 치밀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이미 개악안 전달을 통해 노동조합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할 것입니다. 친분이 있는 인간관계를 이용해, 교섭과 관련된 각종 유언비어를 퍼트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섭에 집중해야 하고, 투쟁 문제는 우리의 요구가 더 이상 관철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직 교섭은 시작도 하지 않았고,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 지난 13년 동안 정체된 임금과 복지 그리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가 몇 마디 말로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울지 않는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장이 원하지 않는데, 사측이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임단협 요구가 현장의 요구임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시오.